

여호와와 손을 놓지 말아라

*작성일 : 2010년 9월 27일

*작성자 : 주성화 (부산 대연주영광교회)

주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진리의 말씀 깊고 오묘한 말씀이이곳 섭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느껴진다며 등 돌린 자들을 보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.

「2010년 9월 17일 금요일 성령집회 기도중 그 모든 것 더 신경 쓰며 관리하지 못한 저 자신의 죄라고 회개할 때, 반복해서‘몸부림의 걸작품, 몸부림의 걸작품’이라는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」

* 하나님 말씀 *

몸부림의 걸작품이라 했지
나의 사랑을 퍼붓고
내가 저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
인생 불쌍히 여기며
이곳 빛 가운데로 인도했지
생명이 빛으로 오면 저 어둠의 세력은 빼앗기는 것이기에
끝까지 틈을 노리고 호시탐탐 엿보아
내 사랑하는 자들 삼키고 데려가려고
흑암들도 더 몸부림친다

하늘의 운이 가고 하늘의 손길이 갔을 때
사람들은 그 뜻 속에
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고파
나름의 몸부림을 치지만
화분에 나무를 심어
그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먹고 싶어도
주인이 물을 주고 햇볕을 적당히 쬌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
그 나무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

너희라는 인생 나무에 나 여호와와
수없이 사랑의 영양분을 주고 말씀의 물을 주어
수시로 나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

수없이 너희에게 합당하도록 퍼붓고 또 퍼부었노라
미련 없이 나는 퍼부었노라
한없이 될 때 까지 퍼부었노라
그러나 관리가 부족하여
이리와 늑대가 와서 손을 대기도 하고
자신이 스스로 책임분담 못하거나
귀한 것을 찾고 발견했어도 놓쳐버리고
자기의 육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지 못해서
그저 암벽에서 손 아프다고 손을 놓아버려
저 사망권의 지옥에 순식간에 떨어진 것처럼
바로 떨어진다

쉽지 않다
끝까지 포기치 않고 가기가 쉽지 않는 것이다
오직 천국문은 대둔산 앞 좁은 문처럼
천국문은 좁디좁아서
자신의 욕의 것을 다 버리지 않고서는
진정 이를 수 없음이라
절대 자신의 것을 버려야 함을 잊으면 안 되느니라

너무도 귀한 인생들에게
나는 미련 없이 후회 없이 퍼부었다
퍼부은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
왜 이리 벗어나려고 하고
자기 것이 나의 것 보다 더 강하여
그 뜻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지
찢어지도록 아픈
나의 마음을 진정 너는 아느냐

한명이 사망권으로 가는 것은
나의 한 지체가 떨어지는 고통의
아픔인 것을 너희는 아느냐
나는 계획이 수없이 많았다
너의 인생 각 개성대로 너무나 계획이 많다
나는 말을 할 수가 없다
그 인생에게 미리 뜻을 두려 하나 보여주려 하나
이 세계는 공의의 법 법칙의 법이 있어
나 여호와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
바로 사람의 책임분담의 법이니라

그 법 속에 나를 향해 뜻을 향해

몸부림 속에 대 걸작품이 되어
각자 인생의 빛 보화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야

놓지 말아라
나의 손을 놓지 말아라
나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말아라
나 그러면 너무 외롭다
나 너무 찢어진다
나 너희 사랑의 기대를 걸고 너희를 창조했으나
나 너희에게 사랑 받지 못하면
나 그저
또 다시 외로운 사랑 홀로 사랑으로 돌아가 버린다
두 입술을 깨물고 참고 이겨온 지난날
이 역사 눈물 없이는 한(恨)이 없이는
이룰 수 없는 역사였는데
너희가 그 마음 놓아버리면 나 더 이상 갈 곳 없
고
차디찬 골방 속에 멈추어 밤새 흐느끼며
울 수밖에 없음을 너희는 진정 알아라

나 너희에게 쉼 없이
따뜻한 빛 진정 희망의 빛을 퍼부으니
나를 향한 그 사랑의 빛 멈추지 말고
너희가 나만 향하면
그 빛은 더더욱 나 여호와와 빛과 합하여
저 찬란한 태양처럼
가장 강렬하고 뜨겁게 네 인생 빛나게 하리라

나의 마음이 너희 속에 거하기 합당하도록
그 모든 너의 것 다 내려놓아
나 여호와와의 사랑이
네 속에 가득 들어갈 수 있도록
나와 끝까지 그곳 향해 영원한 곳 향해 달려가 보
자

절대 멈추면 안 된다
지금까지 달려온 인생
얼마 남지 않은 이때
나의 손 놓은 자만큼 미련한 자 없으니
미련한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인생이 되어라

깊은 나의 속사정이 너에게 항상 갈 수 있도록
그 마음 열고 그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
온전한 역사가 되리라 믿는다
힘!
오직 여호와 태양빛을 받을 때
그 빛은 살리는 빛이 되어 그야말로 너의 인생
따뜻한 인생이 되리라
사랑하여 너희와 함께하고픈
나 여호와가 너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길 원하노
라

나 춥지 않게 해다오
나 따뜻한 사랑 받게 해다오
오늘도 나의 사랑 따뜻하게 전해 줄
섭리 신부들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며 한마디 했다
사랑해
내 마음이 너희에게 향하는 여호와가..